

■ 일반논문

천주가사와 순교의 감정*

고성혜**

<차 례>

1. 들어가며
2. 순교의 열망이 구성되는 지점
 - 2.1. 다음 생애의 약속
 - 2.2. 원죄의식의 내면화
3. 종교 공동체의 형성
 - 3.1. '기쁜 죽음'이라는 역설의 성립
 - 3.2. 감정의 연대와 그 지속의 조건들
4.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입교(入敎)가 곧 죽음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갈 것을 선택하였던 이들의 마음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조선에 천주교가 유입되고 집단적 순교가 일어났던 시기와 맞물려 발생한 천주가사를 분석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혹은 순교하는) 그들의 감정은 무엇이었던 것인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순교자에 의해 제작된 천주가사를 대상 텍스트로 삼아 순교의 열망이 구성되는 지점으로 내세관과 원죄의식에 대해 논구했다. 그리고 3장에서 그것이 공동체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폈으며 특히 기쁜 죽음이라는 관념의 역설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매체로써 천주가사가 감정의 연대와 지속 과정에 준 영향도 보았다.

그 결과 천주가사가 제작되어 유통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집단(공동체)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08-361-A00006)이다.

** 전남대학교

에게 매우 강력한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련의 과정은, 천주가사를 감정의 형성과 전파라는 측면에서 살핀 것이며, 이를 통해 죽음이라는 실존적 사건이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논의까지 가능하였다.

핵심어 : 천주교, 천주가사, 순교, 열망, 감정, 연대, 종교 공동체

1. 들어가며

조선조 남인 계열 학자들은 천주교를 서학(西學)이라는 신흥학문의 형태로 받아들였다. 교산 허균(蛟山 許筠, 1569~1618)이 1610년 중국에서 천주교의 기도문 『계12장(偈十二章)』을 입수한 것을 시작으로, 지봉 이수광(芝峯 李睟光, 1563~1628)이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성호 이익(星湖 李穡, 1681~1736) 등이 그에 대해 논평하는 과정에서 천주교는 새로운 학문의 형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¹⁾ 남인 계열의 지식인들은 서학에 대해 대체적으로 실용주의적 태도를 견지한 반면, 통치 계급을 구성했던 당시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이를 사학(邪學)으로 여겨 부정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천주교를 학문이 아닌 순수한 종교의 맥락에서 수용한 이는 조선인 최초의 세례자인 이승훈(李承薰 베드로, 1756~1801)이다. 이어 서학 중에서도 이편(理篇)²⁾에 관심을 가졌던 김범우, 이벽, 권일신, 정약용, 정약중 등에 의해서 천주교는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종교로서

1) 김종희, 「개화기 천주가사의 세계」, 『현대문학이론연구』 26,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73쪽.

2) 서학은 크게 종교 및 윤리에 관련한 이편과 과학, 기술, 역학, 산학, 의학 등과 관련한 기편(器篇)으로 나뉜다.

소개되고 사유되기에 이른다. 요컨대 조선의 천주교는 남인 학자들에 의해 애초에 신흥 학문의 형태로 유입되었다가 후에 종교적 이념이나 담론의 형태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천주교의 특징이라 하겠다.

천주교에 대한 조선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곧 천주교의 교리가 신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그 입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교리 안에는 제사를 비롯하여 신분 질서, 부부 관계, 남녀노소의 위계질서, 재혼 금지 등을 축으로 한 유교적 생활양식을 침해하는 결과가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³⁾ 그 결과 신유박해를 시작으로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박해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의 수는 점차 늘어났다는 사실이다.⁴⁾

필자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입교(入敎)는 곧 죽음이라는 공식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한 이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즉 순교할 수 있었던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감정들이 그들을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게 하는 결연함으로 이끌었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풀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순교’라는 말은 본래 희랍어 공적인, 법적인, 역사적인, 종교적인 “증언”을 의미하였다. 그러다가 2세기에 이르러서 “신앙을 위한 죽음”으로 쓰이기 시작하였고 오늘날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⁵⁾ 이는 곧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진리의 증언’ 혹은 ‘그리스도 진리의 증언으로 초래된 죽음’이라는 뜻이 된다.⁶⁾ 물론 오늘날 순교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3) 송호근, 『인민의 탄생』, 민음사, 2011, 248쪽.

4) 자세한 수치는 『한국천주교회사』(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 『한국천주교회사』 상(1979); 중·하(1980), 분도출판사)를 기초로 정리한 송호근, 같은 책, 253쪽 표 참조할 것.

5) 지성용, 「순교의 현대적 이해와 가치」, 『가톨릭 신학과사상』 70, 신학과 사상학회, 2012, 203쪽.

6) 최상도, 「순교담론의 패러다임」, 『한국기독교와 역사』 4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4, 120쪽.

진행되면서 순교가 자신의 신앙 혹은 신념을 위해 ‘생명을 바친 자’에 대한 ‘호명’이며, 이 호명의 주체는 희생자들의 행위를 지지하는 ‘산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식의 결과물들이 존재한다.⁷⁾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존의 종교사적 분석은 가급적 지양할 것이며, 순교라는 행위가 지닌 본연의 뜻과 그 감정적 기원에 한정함을 밝혀둔다.

조선에 천주교가 유입되고 집단적 순교가 일어났던 시기와 맞물려 시가사(詩歌史)에서 눈여겨 볼만한 움직임이 있다. 바로 불교가사나 동학가사 등과 더불어 일명 포교가사로 일컬어지는 천주가사의 등장이다. 보통 천주가사의 시기 구분은 크게 셋으로 구획되는데, 강학모임인 ‘주어사 강론’을 중심으로 제작된 작품들과 최양업 신부가 국내에서 전교 활동을 하던 중 제작한 작품들, 그리고 『경향신문』과 『경향잡지』에 게재된 작품들로 나뉜다.⁸⁾ 그러나 본고의 관심은 천주가사의 제작 시기나 개별 작품의 분석에 있지 않다. 오히려 천주가사와 순교라는 종교적 행위 사이의 연결고리 또는 그 내적 함수 관계를 인간의 ‘감정’이라는 맥락에서 짚어보는데 있다.

기실 지금까지 천주가사는 창작 의도와 결부되어 특정 종교(혹은 교리)적 소재를 선택한 가사라는 단순한 평가를 받아왔다. 그래서 그 연구가 자료적 차원의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종교적, 문학적, 음악적 분야에서 언급이 되었다고는 하나 몇 작품 혹은 특정 작가에 치중되어 있어 다소 외면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⁹⁾ 이와는 달리 필자는 천주가사가 제작된 시기에 정치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온건정책이 있었으며 천주가사의 각 저작시기가 끝난 시점에 강력한 종교적 탄압이 있었¹⁰⁾다는 분석을 토대로,

7) 최상도, 같은 글, 116쪽.

8) 이해정, 「천주가사의 저작 배경과 내용의 변화」, 『종교연구』 34, 한국종교학회, 2004, 394쪽.

9) 작품으로는 <사향가(思鄉歌)>가, 작가로는 최양업 신부가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연구사는 각각 「<사향가>에 대한 일고찰」(김은희, 『반교어문연구』 34, 반교어문학회, 2013)와 「최양업 신부의 소작 천주가사의 목적과 특성」(조지형, 『누리와 말씀』 34,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13)을 참조할 것.

10) 이해정, 같은 글, 402~403쪽.

천주가사가 제작되어 유통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집단(공동체)에게 매우 강력한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다. 이에 천주가사를 살펴 순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특정 감정의 형성과 전파라는 측면에서 살피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죽음이라는 실존적 사건이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논의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순교의 열망이 구성되는 지점

명징하게, 조선은 성리학의 이념 아래 세워진 국가이다. 이에 조선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분제도를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으로 분명하게 나누었다. 이러한 사회 안에서 천주교는 대단한 이슈였다. 물론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학을 연구하던 학자, 특히 남인 학자들을 통하여 학문으로 유입될 당시에는 조선을 뒤흔들(?)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학문에 대한 연구와 이념에 대한 깊은 천착으로부터 종교로서의 천주교가 퍼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정신을 담아낸 것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더군다나 신앙서의 경우 방대한 양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문자 체제는 한글이었다. 그리고 보다 널리 향유되기 위하여 쉽게 풀어 쓴 양식이 필요했는데, 재래의 가사 형식은 이러한 해결 지점을 두루 만족시키는 양식이 될 수 있었다. 가사의 특성상 운문으로써 쉽게 읽거나 외울 수 있고 이에 맞추어 내용 역시 쉽게 풀어썼기 때문이다.

18세기 천주교의 시작과 그 흐름을 같이 하는 천주가사는, 포교와 교화라는 목적의식에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가사의 내용이 보통 신앙 고백이나 가르침, 선교¹¹⁾로써 교리에 관련한 내용과 이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천주가사가 도대체 어떠한 지점에서 사람들을 순교에로 까지 나아가게 하였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즉 천주가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염되었던 가치관을 엿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천주교의 기본 교리에는 조선에서 공유되었던 기존의 정신과는 다른 ‘결정적인’ 차별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본고의 목적에 기대어, 작품에는 작자의 내면의식이 드러난다는 전제 하에 순교자에 의하여 제작된 가사를 대상 텍스트로 삼아 살펴보고자 하겠다.

2.1. 다음 생애의 약속

조선의 유교와 천주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세관에 기인한다. <삼세대의>는 천주가사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따라서 일종의 교리서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종교에서 그러하듯 교리는 신앙인들의 기본 지침서이다. 항상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하였으므로 그 내용은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미칠 수밖에 없다.

다음은 민극가(閔克可 스테파노, 1787~1840)의 <삼세대의> 중 275~277행의 내용으로 내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¹²⁾

불스불멸	이령혼이	가는곳이	두곳이라
턴당으로	가즈흐니	비성이면	불입이오
이세상에	잇즈흐니	영구지계	아니로다

이 노래에 따르면 영혼이 가는 곳은 “이 세상” 한 곳만이 아니다. 사람

11)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천주가사」, 『한국가톨릭대사전』 1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8111쪽.

12) 이하 원문은 『교주 천주가사』(김영수,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 61~89쪽)에서 인용.

이 실제 살아가고 있는 현세와 다른 공간, 즉 “턴당”의 존재가 전제되고 있다. 그런데 천당이란 곳은 성인이 아니면(非聖) 들어갈 수 없다(不入). 반면 이 세상은 영원히 살 만한 땅이 아니다(永居之界). 즉 현세와 천당은 대비되는 곳이며 현세는 부정적이고 천당은 긍정적인 이미지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인식은 현실에 염증과 환멸을 느끼던 사람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어냈을 것이다. 동시에 이 가사가 일반(혹은 예비) 신자들을 대상으로 향유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아래에서 생소한 관념을 불러일으켜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 가사의 경우 조선에 『성경』이 전해지기 전에 지어진¹³⁾ 작품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신선했을 것이다.

더욱이 <삼세대의>에 이어서 수록되어 있는 <천당강론>과 <지옥강론>은 내세관을 보다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들 작품은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전제하며 둘을 대비시키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골슈에	삭여두고	므옴에	박아두어
시시로	싱각ㅎ며	날마다	묵상ㅎ야
잠간세상	지나치고	턴당으로	가스이다

위의 내용은 <천당강론>의 일부분으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세는 “잠간” “지나”칠 공간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야할 곳은 “턴당”임을 피력하고 있다. 역시 천당은 존재하고 있는 곳이며, 인간으로서 돌아갈 곳이 있으므로¹⁴⁾ 현세는 특별한 미련을 둘 곳이 아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시 순교의 영광과 내세에서의 보상을 강조하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가르침 역시 지식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그 신자층이

13) 조원형, 「천주가사 『삼세대의』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한국학연구』 2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281쪽.

14) <사향가>에서 천당을 ‘고향’의 의미로 두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확대되고 있었던 상황과 맞물려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¹⁵⁾ 이러한 인식의 변화 속에서 천주교 신자들은 점차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2.2. 원죄의식의 내면화

기본적으로 천주교에서 정의하는 인간은 원죄(原罪)를 지닌 존재이다. 원죄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라는 의미로, 현세에서 지은 죄와는 별개이다. 때문에 현세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이미 지어버린’ 죄는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인식은 『성경』의 시작 부분에 언급이 되어 그들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한다.

인간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는 <삼세대의>의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턴쥬전능	무한흐샤	삼분지일	뵤즈리를
사름으로	덩흐시고	디당세계	빅표흐야
아담에와	문드실체	흙덩이로	테를지어
령흔들나	명흐시니	명령되로	남즈되여
취흐잠을	지온후에	특골흐나	썩혀내여
녀인마자	조성흐니	건장흐고	슬기잇서
에와정이	그득흐야	디당세계	쥬장이라

천주는 전능한 힘으로 사람을 지장세계에 살게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담과 에와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 시작을 의미한다. 정약종이 한글로 적은 최초의 교리서인 『주교요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천주는 인간(아담과 에와)을 “특별한 은혜를 나리어 그 성품이 착하여 사욕이 없고 그 슬기 밝아 흐린 곳이 없고 마음이 극히 발라 편벽되지 아니하”게 만들어 “영혼의 복”을 주었다. 또한 그들을 “이 세상에 한 좋은 곳”인 “지당

15) 노길명,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과 가톨릭 교회의 성격 형성」, 『가톨릭과 조선 후기 사회 변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146쪽.

(地堂)”에 살게 하였다.¹⁶⁾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존재들은 곧 시험에 빠지게 된다.

주의공의	각별하사	즈쥬장을	주신후에
싱명하라	싱명과오	시험하라	선악과라
이실과를	주신후에	엄명으로	경계하니
이계명을	친히밧아	영복중에	잠겼더니
홍악하다	누지썩리	절치부심	함독이라
간교로운	마귀계교	비암의게	숨어잇서
급하도록	급하도록	흔나잘이	치못되야
비암오네	비암오네	말잘하고	아름답다
업는정을	자아내어	에와의게	못는말이
이실과는	무엇시며	더실과는	무엇시요
이실과는	싱명과요	더실과는	선악과라
싱명과는	먹고살고	선악과는	범계로다
엇지하야	범계러나	턴쥬친히	말슴중에
이실과를	썩먹으면	너희너외	벌을밧아
억억만디	즈손썩지	엄흔벌을	당하리라
주의훈계	이러하니	못썩먹는	연고로다
마귀비암	흔는말이	주의말에	속앗도다
그런연고	아니로다	이실과를	썩먹으면
주의능과	긋흔고로	못썩먹게	연고로다
흐리도다	흐리도다	원조아담	흐리도다
너머가네	너머가네	비암의게	너머가네
싸는고나	싸는고나	선악과를	싸는고나
먹는고나	먹는고나	선악과를	먹는고나

천주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더불어 이것을 먹을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억억만디 즈손썩지”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 그

16) 정약중, 하성래 역, 『주교요지』, 성황석두루가서원, 1995, 50쪽.

러나 곧 간교한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 먹어 버리고 마는데, 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인간은 천주와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다. 이 행동은 천주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인간 스스로가 저버린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다. 다만 이를 계기로 “디당 밧괴”로 내쳐 버린 천주의 벌에 슬퍼하며 그동안 없었던, 그리고 현세에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

밧느고나	밧느고나	주의벌을	밧느고나
무섭도다	무섭도다	주의의노	무섭도다
내치시네	내치시네	디당밧괴	내치시네

이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인간으로서 가진 원죄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들은 원죄를 인정하며 고통을 감수해내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통회흐나 남앗시니 주디전에 빌”며 천주에게로 돌아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3. 종교 공동체의 형성

본고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천주가사가 제작되어 유통되면서 집단(공동체)에게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그러한 과정에서 특정 감정이 공동체에 과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종교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믿음’이다. 신에 대한 믿음, 교리에 대한 믿음,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까지, 이러한 믿음은 어떠한 결의로까지 받아들여진다. 종교의 종류를 막론하고 이러한 믿음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무속신앙을 보면, 규제의 대상이었으며 동시에 무속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음사(淫祀)로 여겨 금지하였던 때가 있었다. 불교 역

시 조선 건국 이후 송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탄압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신앙이나 불교가 신앙으로써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삶을 통해 종교에의 믿음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¹⁷⁾ 그것이 무엇이든 종교의 믿음 중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종교의 중심, 혹은 주체가 되는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 천주교에서는 천주, 즉 하느님을 의미한다.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내세에로의 구원의 열망은, ‘전능하신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믿음이라는 순수한 감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 믿음에 근거한 태도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새로운 혹은 적잖이 낮은 관념이 산출된다는 점일 것이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그러한 관념이 공동체의 감정적 유대와 결속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이다.

3.1. ‘기쁜’ 죽음이라는 역설의 성립

중양의 통치이념이었던 성리학이 백성들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했거나, 혹은 조선 중기에 증가한 통치 기제의 효율성이 17~18세기의 사회적, 경제적 변동에 의해 소진¹⁸⁾되었다는 식의 다양한 이유를 적용해 보더라도 순교를 통하여 약 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신유박해(1791)부터 병인박해(1866)에 걸쳐 이루어진 순교로의 과정은, 프랑스인 신부 샤를르 달레(Charles Dallet)가 남긴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일단 신도를 색출하여 반역죄인이자 인륜을 어긴 자들로 낙인찍는다. 이어 갖은 매질과 고문으로 배교를 요구하지

17) 정인숙,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내면과 종교적 믿음의 양상: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7~9쪽.

18) 송호근, 같은 책, 230쪽.

만 신도들은 결코 천주를 부정하지 않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¹⁹⁾

그런데 신기한 점은 그 많은 순교자들이 ‘은총에 빛나는 기쁜 얼굴로 죽어 갔다’는 것이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밝고 빛나는 표정을 구경꾼들은 신기해 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른 죄인들이 조소와 옥설을 퍼붓는 구경꾼들에게 “당신네들은 웃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어야 할 것입니다. 불쌍한 건 우리 처지가 아니고 당신네들의 처지니까요.”²⁰⁾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죽음을 대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던 내세에 대한 믿음과 원죄에 대한 내재화, 그리고 근본적으로 천주에 대한 믿음에 기인한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유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는 내세관에 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슴에 새긴 신자들에게 죽음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언급하여야 할 또 하나의 관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이다. 기존의 신분체제로 인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들에게 순교를 통한 ‘자기 목소리 내기’는 대단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동을 하는 것은 과거의 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또 결코 그러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버리고 ‘스스로 선택’하여 신의 품으로 간다는 것은 성스러움에서 나아가 일종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선택한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삼세대의>에서는 다음의 220행부터 ‘죽음’과 관련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죽을디경	되온후에	크게소리	흐는말슴
드리노라	내령혼을	성부의게	드리노라
죽으시네	오쥬예수	무죄히도	죽으시네
춤아보기	어렵도다	스후형별	무슴일고

19) 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 같은 책.

20) 김옥희, 『순교자의 삶』, 학문사, 1983, 송호근, 같은 책, 230쪽에서 재인용.

털창으로	특방쏘어	솟는거시	성혈이라
오주예수	죽은테를	십자가에	느러오니
성모품에	안으시고	통곡하야	울으실제
령혼업는	금슈라도	이런하야	설위울고
각혼업는	초목들도	슬픈경을	품엇도다

예수의 죽음은 결코 평범한 죽음이 아니다. 예수는 죽어갈 때에 자신의 영혼을 성부께 드린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죽음은 성스러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예수의 죽음은 ‘무죄’한 것이다. 깨끗한 죽음이므로 고결함까지 내포하게 된다.

성인이 아니면 천당에 갈 수 없다는 전제와, 세상의 가장 큰 괴로움은 지옥에서 천주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옥강론>의 내용으로, 죽음의 슬픔은 배제가 된다.

세상부모	못뵈움도	그고로움	난감커든
턴주성용	턴당영복	무슴복락	비홀소냐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천당에서 주님을 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에 신자들은 “이복락과 더복락은 쥬뵈업는 복락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죽음을 선택하였다.

그들이 이해한 죽음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는가. 다음의 구절을 보도록 하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요한 12, 24~25)²¹⁾

씨앗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땅

21) 주교회의성서위원회,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에서 썩는 행위를 통하여 푸른 싹으로 새롭게 돌아난다는 의미이다. 죽는 행위를 통해 종국에는 많은 열매, 즉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던 예수가 십자가의 수난을 통해서 지극히 영예롭게 들어 올려진 것처럼 말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 생애에서의 목숨에만 관심이 있어 시련에 처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여 이 생애에서 환난에 처한 사람만이 훨씬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목숨을 미워함이 자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자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을 때, 박해자가 죽음으로 위협하고 하느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성을 떠나야 할 때, 그럴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미워하라는 가르침인 것이다.²²⁾

기본적으로 죽음에는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에 대한(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행할 수 없다는)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맺음에 대한 단절에의 슬픔이 공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체념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이라는 것이 종료가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된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그것은 결코 두려운 것만은 아니게 된다. 더불어 이미 원죄를 지닌 육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기저가 된 죽음은 더 이상 슬픈 것도 아니다. 더욱이 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증명하는,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라는 점은 성스럽기까지 하다. 이는, 나아가 천당으로 간다는(천주의 품으로 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에 선택받았다는 우월감까지 주어지게 된다. 죽음과 기쁨이 만나 이루는 역설적인 의미는 이로써 해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형성의 가운데에는 천주가사가 있었다.

22) 조엘 C. 엘로브스키 엮음, 이형우·하성수 역, 『교부들의 성경주해』 신약성경VI, 분도출판사, 118~123쪽.

3.2. 감정의 연대와 그 지속의 조건들

정체성이란 개념은 일차적으로 한 개인이나 어떤 대상이 그 자신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볼 때 한 개인의 정체성이란 개성이나 인격과 같은 개인 심리적인 차원에서보다는 훨씬 다층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관계적 개념이다. 문화사적 지평에서 정체성은 결코 확고부동한 개념이 아니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인간의 현실이 처하게 되는 다양한 차원에 맞게 역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된다.²³⁾

한편, 현대사회에서 소통되는 모든 감정은 결국 대중 매체를 통해서 형성되고 전파된다고 한다. 독일의 프랑크 뵈쉬와 마누엘 보루타가 편집한 연구서 『대중이 움직인다』에 따르면, ‘매체가 감정을 표현하고 생산해내며, 감정 표현의 강도나 표현 형태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감정에 대한 담론들을 생산해냈다’는 전제가 형성된다. 시기적으로는 20세기에 집중되고 있지만,²⁴⁾ 과연 ‘매체’가 대중의 감정을 양산해 내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한 시기에만 국한되는지 의문이다. 필자는 이 연구가 매체와 감정의 관계에 대한 담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중요한 관심사로 삼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그리고 그 매체가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영향력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제 천주가사라는 매체를 통하여 특정 감정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달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조선에서 가사라는 형태로 해석되고 재구된 『성경』은 당대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초기의 작품들은 기존의 관습까지 포함하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담론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23) 신혜양, 「유럽통합과 문화정체성」, 『인문과학』 56,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316쪽.

24) 문수현, 「‘감정으로서의 전환(Emotional turn)?’ -감정사 연구 성과와 전망-」, 『서양사론』 96, 한국서양사학회, 2008, 277쪽.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담론은 말하고 있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형성시키는 실천이다.²⁵⁾ 또한 담론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활성화되고, 그 맥락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²⁶⁾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관련 담론들을 통하여 조선의 천주교를 위시한 공동체는 특정한 정체성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담론의 역할을 천주가사가 매체라는 자질로 수행해 내었다면 천주가사의 의의는 단순하지가 않게 된다. 실제로 천주가사를 통하여 교리는 전파되어 향유되었고 특정한 주제와 모티프는 이후 다양한 작품들에게 영향을 주며 공유되었다. 여기서 공유된 요소들은 원형적 요소로서 집단적 감수성을 형성하고 공동의 영역을 구성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사 안에서 담고 있는 『성경』의 내용에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이는 공유하는 이들끼리 공통된 감정을 나누게 하였으며, 이야기를 통하여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발전하였다는 말이다.

조선 내에서 천주교라는 종교의 공동체로서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했다. 주지하다시피 정체성이란 것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하고 사회구조를 반영하며 집단 안에서 구현된다.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전형적인 정체성을 갖도록 그 모형을 제시하는데,²⁷⁾ 역사상 그 역할을 담당한 것은 구체적으로 국가, 인종, 종교 등이었다.

천주교 역시 새롭게 유입되었던 종교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천주교라는 종교 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미 무속신앙부터 불교, 유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를 가져왔던 역사 안에서 생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본고에서 살펴보았던 천주가사이다. 천주가사의 경우 기존에 향유되었던, 백성들에게 익숙한 양식이었

25) 미셸 푸코, 이정우 역,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1995, 83쪽.

26) 사라 밀즈, 김부용 역, 『담론』, 인간사랑, 2001, 15~17쪽.

27) 김형숙, 「천주가사 <삼세대의>의 신앙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09쪽.

으며, 따라서 이미 ‘적응’된 방법으로 집단의 이념을 새로이 구축함으로써 특정한 공동체를 생성해낸 것이다.

공동체는 전형적인 정체성을 갖는다. 천주교라는 종교 공동체의 정체성은 천주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교리에 의하여 정립된다.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물주로서의 신에 대한 경이감과 믿음으로부터 형성되는 희열과 기쁨은, 전통적인 조선의 종교 공동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 살펴본 그들은 경이감, 희열, 기쁨, 우월감 등의 감정 요소들을 갖는다. 기존에는 없었던 내세관이 형성해낸 경이감과 평등적인 신분 질서 구조를 꿈꾸게 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희열과 기쁨, 그리고 선택 받은 자라는 우월감 등은 그들의 공통적인 정서였다. 이에 따라 신자들은 천주교의 교리를 지키거나 생활 속에서 행하기 위해 제사의 방식을 간소화 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생활양식 자체를 바꿔 버리는 변화를 보여주기에 이른다.

앞서 언급되었던 작품 <삼세대의>의 작자 민극가에 관련한 일화를 통해 이른바 감정의 전염이라 부를 수 있는 모습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극가는 양반으로서 교리교사를 하며 많은 이들에게 선교하였다. 그러다가 1839년 박해 말미에 체포되어 포도청에서 다음과 같은 심문을 받았다. “네가 만일 천주교를 따르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으면 너를 풀어 주겠다.” 이에 대해 민극가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나는 할 수 없소.” 그는 더 심한 고통을 당하였으며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외침을 들었다. “배교하고 풀려나라.” 그는 지치지 않고 대답하였다. “당신이 나를 풀어준다면 나는 신앙을 따를 것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이요.” 포도대장은 분노하여 그에게 칼을 썬우고 죽어 마땅하다며 죽도록 매질을 하였다. 매를 때릴 때마다 포도대장은 형리를 독려하기 위해 스스로 감독하여 40대까지 매질하게 하였지만 인내를 꺾을 수가 없어서 감옥으로 보냈다. 민극가가 감옥에 이르자 파란이 일어났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려고 하는 배교자들을 독려하려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일을 계속하였으며 그 노력의 결과 많은 이들이 배교를 철회하고 그로부터 다시 격려를 받는 일

이 일어났다. 그는 간수도 포졸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단호하게 신자임을 말하였으며 하느님을 위해 죽음도 받아들일 것이라 하였다. 그는 다음 날에 다시 심문을 받았으나 어떤 형벌도 소용이 없었다. 그와 같은 자유롭고 단호한 순교자가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감옥에 있는 5~6일 동안 몇몇 이들을 회개하도록 하여 큰 영애를 만들어 낸 후에 12월 26일에 53세의 나이로 교살 당하였다.²⁸⁾

민극가의 경우 순교자 증언록과 관찬 기록에 인천 지역에서 교리교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이러한 민극가의 활동을 통해 인천 지역에 신앙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을 찾을 수는 없다.²⁹⁾ 때문에 순교자들이 이후의 신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순교라는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된다. 그 기저에는 본질적으로 같은 천주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었으며, 그것이 그들을 연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감싸 안아(포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요건을 무엇으로 설명해 낼 수 있을까. 필자는 이를 평등에서 찾고자 한다.

<u>남녀교우</u>	<u>형님네아</u>	이내말씀	들어보소
봉교인의	본분이오	영복맞는	갑시로다
이달을손	<u>우리사람</u>	넙교흔지	몇몇히에
<u>교우분분</u>	업섯시나	고상흐나	걸어노코

28) A-MEP, Mgr Daveluy Vol. 4 Note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필사문서 관독 자료집』, 한국천주교주교회의문화위원회, 2012, 471쪽, 김규성, 「인천교구 관할지역 관련 기해 병호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사료 연구」, 209쪽에서 재인용.

29) 김규성, 같은 글, 232쪽.

천주교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은 서로를 ‘자매’ 혹은 ‘형제’라고 칭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천주(하느님)라는 공통된 믿음의 대상 아래에서 천주의 자녀로 자신들을 분리해내기 때문이다. 즉 이 종교 공동체 안에서는 층위가 크게 천주와 신자들로 구별되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가사에서도 담화에 참여하는 이들을 ‘남녀교우 형님’, ‘봉교인’, ‘우리 사람’, ‘교우’ 등으로 언급함으로써 신분을 떠나 평등한 관계로 놓았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신분제도와 그로 인해 굳어진 삶의 방식들은 종교가 주는 새로운 역할 아래에서 기존과는 다른 충격으로 사람들을 결속시키며 연대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필자는 매체를 통한 공감에서 찾았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뿐 아니라, 기쁨에도 적용되는 것이며,³⁰⁾ 이를 통하여 타인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행위를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동감적 공감’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초기-동감적 공감이란 상황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공감의 대상이 되는 상대에게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³¹⁾ 이를 천주가사에 대입시켜보면, 천주교에 대한 관심을 천주가사라는 매체가 환기시켰으며, 가사의 내용을 통해 사람들은 특정한 감정들을 느끼고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끼리 공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된 사람들은 특정한 상상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한다. 일련의 과정이 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종교 공동체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의 모습은 한국문화에서 특징으로 삼고 있는 유사 가족주의

30) 제레미 리프킨,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1, 21쪽.

31) Darwall, Stephen. “Empathy, Sympathy, Care.” *Philosophical Studies* 89(2/3): 272, 이승훈, 「다양성, 동감, 연대성」, 『동양사회사상』 25, 동양사회사상학회, 2012, 14쪽에서 재인용.

라는 편집증적 네트워크와 우리 의식에 기반을 둔 배타적 공동체³²⁾의 모습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공감의 범위가 유사 가족으로 제한되어 집단의 일부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확장 가능성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감정의 연대로 형성된 공동체는 오랜 시간 어떻게 지속될 수 있고, 왜 지속하려는 것인가. 사람들이 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안락함을 추구하고 리비도를 충족시키려는 욕구”에서가 아니라, “사랑, 호의, 유대감, 인적 교체”를 의도하기 때문이다.³³⁾ 사랑이나 호의, 유대감, 인적 교체 등은 이른바 ‘신의’라는 사회적 감정을 통해 지속된다. 참고로 짐멜(G. Simmel)은 신의에 대하여 다음처럼 정리하고 있다.

신의란 아주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서 그리고 다양한 상호 결합의 동기를 전체적이고 통일적으로 담아내는 형식이다. 그리고 원래 존재하던 모든 차이를 넘어서 최초의 심리적 상태들은 신의의 형식 속에서 일정한 균일성을 띠게 되는데, 이 균일성이 신의라는 감정 자체의 지속적인 성격을 촉진시킴은 명백하다. ... (중략) ... 신의란, 그와의 관계 유지를 지향하는 감정이다. 신의는 이미 창출된 관계를 관통하면서, 이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강하게 묶어 준다. 신의란 결국 내면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가 스스로 유지되도록 하는 감정이다. 신의 이외의 다른 여러 감정들의 경우 그 생성과 소멸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통제될 수 없다. 신의를 저버리는 경우에는 사랑이나 사회적 책임감을 저버리는 것보다 더 강한 비난을 받게 된다.³⁴⁾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개인,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이든 간에, 어떠한 관계가 지속되게 되면 그들 사이에는 내적인 구속력이 생기게 된다. 천주에 대한 공통의 믿음으로 관계 맺기 시작한 이들은, 신앙 생활(종교

32) 정명중, 「감성공동체의 발견」, 『감성연구』 3,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 78쪽.

33) 제레미 리프킨, 이경남 역, 같은 책, 71~72쪽, 정명중, 「감성공동체의 발견」, 『감성연구』, 83쪽에서 재인용.

34)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188~191쪽.

공동체)을 유지 및 발전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 관계를 결속시켜 나간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신의라는 사회적 감정이고, 그러한 감정을 통해 그 관계는 공고해진다.

나는 순교자를 좋아합니다. 利害榮辱을 도외시하고 오직 진리와 의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희생하는 순교자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믿습니다. ... (중략) ... 나는 천주교도의 數萬명 순교자들을 존경합니다. 그 역사를 잘 알 수 없음이 恨이어나와 조선인 수만의 순교자를 내었다는 것은 不朽의 자랑으로 알며 내 혈관에도 이러한 순교자의 피가 흐르거니 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큰 긍지를 느낍니다.³⁵⁾

잡지에 실린 위의 인용문을 보면, 과거 순교를 하여 믿음을 증거하였던 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설적으로 이해하자면, “조선인”이 “수만의 순교자를 내었”고 우리의 “혈관에도 이러한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으므로 신자로서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여 신앙생활을 독려하겠다는 의도이다. 어렵게 지켜낸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도덕적 명령과 그 안에서 유지된 천주교(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1840년 이문우(李文祐 요한, 1809~1840)가 창작한 <옥중제성>을 살펴본다. 제성가(提醒歌)의 일종인 <옥중제성>은 고통 안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내용은 죽음을 이기고 영혼의 승리와 구원을 노래함으로써 박해 중 옥중에서 천주교도들의 순교를 각성시키는 내용이다. <옥중제성>의 서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³⁶⁾

잔인하다	군논이여	탄상과를	빅심이라
열심스쥬	예비호야	엄형고쵸	뜰게맞게
죽기선지	맞노래도	오천스빅	다못맛네
동국쥬보	성모은덕	우리신부	임을입어

35) 이광수, 「천주교도의 순교를 보고」, 『삼천리』 7권 10호, 1935년 11월.

36) 이경민, 「천주가사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71쪽.

치명자의 열정이여 아름답다 빛치나네

천주교에서 신앙이라는 활동은 인간이 “하느님 은총에 섭리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신앙의 내재적 원리에 근거한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식 작용은 “객관적으로 관찰하거나 지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타자 안에서 자아의 본질과 같은 속성을 바라보고, 타자의 자아체험을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느끼려는 관계적 사유”이다. 이에 따라 천주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희망하는 이들의 공동체적 연대성”이 유지된 것이다.³⁷⁾

초기 교회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세상에 파견되었음을 확신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체험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치와 친교의 코이노니아로 성장시키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즉 서로 나누어 갖고 주며, 함께 참여하면서 친교를 이루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관계성이었다. 이때는 교회를 ‘친교적 공동체’로서 이해했고, 이 교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의 진리를 고백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신앙 감각의 공감적 능력을 인정하였다. 이후 가톨릭 신앙이 중세의 문명사적 흐름 속에서 지배해온 신앙 우위의 세계관은 제도 중심의 교회로 이끌었다.³⁸⁾

하지만 이 글에서는 조선에서의 종교 공동체가 지녔던 성격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당시 종교 공동체는 학문으로 유입되었으나 결국 유교와 오래된 관습의 부패로 인하여 살기 힘들었던 현실을 타개시켜줄 만한 (혹은 잊을 수 있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천주교가 퍼질 당시, 천주가사가 활발하게 제작되어 유포되다가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후 다시 천주가사가 제작되어 유포되다가 박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의식 형성에 천주가사라는 매체가 미쳤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천주가사가 다양한 감정들을 형성하며 사람들

37) 송용민, 「‘공감 능력’과 ‘신앙 감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누리와 말씀』 36,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14, 193~196쪽.

38) 송용민, 같은 글, 197~198쪽.

을 연대시켰던 기능을 해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천주가사와 순교의 감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의 천주교는 학문의 형태로 유입되었다가 후에 종교적 이념이나 담론의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천주교에 대한 조선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곧 대대적인 탄압의 입장을 취하는 변화를 가졌다. 이 박해 과정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났는데,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의 수가 늘었음에 집중하였다. 이에 어떤 감정들이 그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먼저 순교자에 의해 제작된 천주가사를 대상 텍스트로 삼아 순교의 열망이 구성되는 지점을 살폈다. 구체적으로는 민극가의 <삼세대의>를 주 텍스트로 분석하며 내세관과 원죄의식을 기존의 정신과는 다른 결정적인 차별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정신이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 3장에서 그것이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종교 공동체의 형성을 살피며 우선 당시 순교의 모습을 살폈다. 집단적 순교가 일어났을 때, 그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2장에서 살폈던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신자들에게 죽음이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기쁜’ 죽음이라는 역설을 성립하게 하였다. 더불어, 필자는 조선에 천주교가 유입되고 집단적 순교가 일어났던 시기와 맞물려 시가사에서 천주가사가 특별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매체로써 천주가사가 감정의 연대와 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천주가사가 제작되어 유통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집단(공동체)에게 매

우 강력한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만, 작품에서는 결코 직접적으로 순교를 결의한다거나 촉구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본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천주가사가 일종의 신앙고백이며 순교에 이르기까지의 감정을 형성하는 데에 이러한 신앙고백이 어떠한 역할을 끼쳤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에 천주가사를 살펴 순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특정 감정의 형성과 전파라는 측면에서 살폈는데, 이를 통해 죽음이라는 실존적 사건이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논의까지 가능하였다.

<참고문헌>

-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김덕영·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188~191쪽.
- 김규성, 「인천교구 관할지역 관련 기해 병오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사료 연구-다블뤼의 기록과 여타 기록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누리와 말씀』 34, 인천카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13, 209, 232쪽.
- 김영수, 『교주 천주가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 61~89쪽.
- 김은희, 「<사향가>에 대한 일고찰」, 『반교어문연구』 34, 반교어문학회, 2013.
- 김종희, 「개화기 천주가사의 세계」, 『현대문학이론연구』 26,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73쪽.
- 김형숙, 「천주가사 <삼세대의>의 신앙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109쪽.
- 노길명,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과 가톨릭 교회의 성격 형성」, 『가톨릭과 조선 후기 사회 변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146쪽.
- 문수현, 「'감정으로의 전환(Emotional turn)'? -감정사 연구 성과와 전망-」, 『서양사론』 96, 한국서양사학회, 2008, 277쪽.
-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이정우 역,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1995, 83쪽.
- 사라 밀즈(S. Mills), 김부용 역, 『담론』, 인간사랑, 2001, 15~17쪽.
- 샤를르 달레(Charles Dallet), 안응렬·최석우 역, 『한국천주교회사』 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 _____, 『한국천주교회사』 중·하,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 송용민, 「'공감 능력'과 '신앙 감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누리와 말씀』 36,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14, 193~198쪽.
- 송호근, 『인민의 탄생』, 민음사, 2011, 230, 248, 253쪽.
- 신혜양, 「유럽통합과 문화정체성」, 『인문과학』 56, 성균관대학교 인문

- 학연구원, 2015, 316쪽.
- 이광수, 「천주교도의 순교를 보고」, 『삼천리』 7권 10호, 1935년 11월.
- 이경민, 「천주가사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71쪽.
- 이승훈, 「다양성, 동감, 연대성」, 『동양사회사상』 25, 동양사회사상학회, 2012, 14쪽.
- 이혜정, 「천주가사의 저작배경과 내용의 변화」, 『종교연구』 34, 한국종교학회, 2004, 394, 402~403쪽.
- 정명중, 「감성공동체의 발견」, 『감성연구』 3,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 78, 83쪽.
- 정약중, 하성래 역, 『주교요지』, 성황석두루가서원, 1995, 50쪽.
- 정인숙,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내면과 종교적 믿음의 양상: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4, 7~9쪽.
- 제레미 리프킨(J. Rifkin),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1, 21쪽.
- 조엘 C. 엘로브스키, 이형우·하성수 역, 『교부들의 성경주해』 신약성경VI, 118~123쪽.
- 조원형, 「천주가사 『삼세대의』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한국학연구』 2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281쪽.
- 조지형, 「최양업 신부의 소작 천주가사의 목적과 특성」, 『누리와 말씀』 34,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13.
- 주교회의성서위원회,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지성용, 「순교의 현대적 이해와 가치」, 『가톨릭 신학과 사상』 70, 신학과 사상학회, 2012, 203쪽.
- 최상도, 「순교담론의 패러다임」, 『한국기독교와 역사』 4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4, 116,120쪽.
-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천주가사」, 『한국가톨릭대사전』 1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8111쪽.

<Abstract>

Study on Catholic-Gasa and Emotion of Martyrdom

Ko, Seong-hye

This study began from a question where the mind of those who resolved to live as Catholic nevertheless entering the church(入教) meant death began. Here, this study intended to discuss what was the emotion that they could face death, that is, could face(or suffered) martyrdom in the persecution.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afterlife view, original sin consciousness, and belief in God as the point of generating passion for martyrdom, by selecting the works of the writers who suffered martyrdom as the target text. Also, explained that the a paradoxical emotion, pleasant death, is possible based on such spirit. Lastly, this research presumed that Catholic-Gasa could transmit special emotion to a group(community) that received it, while it was distributed. As the result, this research could determine that Catholic-Gasa could take a mediating role of formation of a certain emotion. Simultaneously,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at the community was maintained through that emotion.

That is, this research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motion to reach martyrdom by researching Catholic-Gasa. As a series of process, it would be also possible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death(emotion) in a community.

56 韓國古詩歌文化研究 제36집

Key words : Catholicism, Catholic-Gasa, martyrdom, passion, emotion, solidarity,
religious community

투고일 : 2015년 7월 15일, 심사 : 7월 17일 ~ 8월 13일, 게재확정 : 8월 13일